

조선시대 深衣 유형에 관한 연구

정 혜 경·권 영 숙·최 은 주·문 명 옥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assortment of Sim-Eui Form in Chosun Dynasty Period

Hye-Gyung Chung · Young-Suk Kwon · Eun-Joo Choi · Myeng-Ok M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8. 9.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ort Sim-Eui form in Chosun Dynasty Period, so that we considered pictures of Sim-Eui in literature, portraits, and Sim-Eui.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 Considering that United Sinla Period was related deeply to Tang Period, it is assumed that Sim-Eui was already transmitted in United Sinla Period.
- Sim-Eui form was assorted roughly into two group, Straight line collar Sim-Eui (Gik-Ryeong Sim-Eui) and Sguare collar Sim-Eui (Bang-Ryeong Sim-Eui). The former was made to close collars but not similar to carpenters square (Gop-Ja). The latter was made by Bek Gyum-Han at the begining, by the way it was not used widely. Then again Chun-Hu made the Sguare collar Sim-Eui in 19 c, it was used widely with Straight line collar Sim-Eui.
- Sim-Eui in 「Ga-Rye-Bu-Chuei」 was similar to those days Chullick, that verifies the Sim-Eui's influence on Chullick.
- There was new simple Sim-Eui in 「Sa-Rye-Jip-Yo」, it was similar to large sleeve's Durumagi, Heng-Eui.
- Sim-Eui was substituted by Gik-Ryeong Eui, Dap-Ho, Dan-Ryeong, Do-Po, Heng-Eui.

I. 서 론

深衣의 구성은 上衣와 下裳이 분리되어 제작된 후 허리에서 연결된 것으로, 上衣下裳制와 마찬가지로 「易繫辭下」¹⁾의 “황제 唐舜이 의상을 베풀어서 천하를 다스린 것은 대개 이것을 乾·坤에서 취하였다”는 衣(乾), 裳

(坤)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근본적인 의복구성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심의구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禮記」 玉藻와 深衣 두편에 있는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여 후에 제학자들간에 深衣에 대한 經文의 해석이 논란이되어 왔으며, 「曲袷」 「續任鉤邊」 등 구성상의 해석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가치관이 의식

과 행동뿐 아니라 의생활에도 강력한 규제력을 행사하여, 深衣구성에 대한 해석도 역시 유학자들간에 많은 논의를 일으켜 그 결과 深衣구성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과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深衣의 우리나라 전래시기와, 深衣유형을 깃의 형태에 따라 直領深衣·方領深衣 두가지로 분류 고찰하였다. 深衣형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은 조선시대 문헌중에 수록된 深衣에 대한 제설로서 그 가운데 深衣圖 7종과, 초상화 20여점, 그리고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 실물 3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深衣의 전래

深衣의 기원에 대하여 중국의 문헌자료로 「禮記 王制²⁾에 “虞氏는 皇(황)을 쓰고 제사하고 深衣로서 養老의 禮를 행했다…殷나라 사람은 肿(우)를 쓰고 제사하고 縞衣로서 養老의 禮를 행했다.”고 하였으므로 周錫保³⁾는 殷代에 縞衣는 또한 옛날의 深衣制라하여 深衣의 기원을 周 이전으로 보았다. 또한 杉本正年⁴⁾은 「禮記」의 “옛날에 深衣는 제도가 있어”라는 귀절에서 이 옛날은 西周時代(B.C. 1027-771)를 가리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深衣의 우리나라 전래시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고려중기이전으로 추측되어 왔었다.⁵⁾ 그런데 深衣가 우리 문헌에 최초로 보이는 것은 최치원(857~)의 「類說經學隊仗」⁶⁾으로 “옛사람이 의상을 만들적에는 그림으로서 장식을 한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德을 나타내었던 것이며 또 보기에도 아름답게 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義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規矩와 方圖의 상응은”⁷⁾ 深衣의 작은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유설경학대장」의 저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유설경학대장」에 대하여 중국의 「四庫全書總目」에는 중국인 朱景元의 저작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최치원의 저서라면, 그가 당시 唐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벼슬을 하고 돌아왔으므로 당시 士人계급에서 착용되던 중국 深衣에 최치원 자신도 또한 접해 입어 우리나라에 전했을 것이며, 또 중국복식의 영향이 절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사회적 여건에서 볼 때에도 深衣의 통일신라시대 전래 가능성은 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深衣 착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肅宗(1106-1122)때 왕이 제사를 도울때에 입었다⁸⁾고 한것으로, 그 당시 宋에서는 사대부간의 冠·婚·祭祀·宴居·交際의 통복으로 사용되었으니⁹⁾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주자학의 전래로 고려말 이후 이 深衣는 四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논의를 일으켰다. 조선시대의 深衣에 대한 기록들에는 제가의 深衣論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뒤에 첨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설은 그대로 자신의 의복에 적용시켰음을 초상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에 深衣가 전래된 시기는 고려 중기 이전이라는 것이 통설이나 복식문화에 있어서 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통일신라에도 이미 深衣는 전래되었다고 본다.

III. 조선시대 深衣의 유형

深衣 구성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禮記」의 玉藻¹⁰⁾ 및 深衣¹¹⁾ 두편에 있으나 그 내용이 간결하며, 深衣의 각 부분이 사람의 몸으로서 척도의 기준으로 삼고있을 따름이고 일정한 치수가 정해진 것은 裉, 袱, 緣뿐이다. 따라서 이후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게 되었다. 이 중국의 제설들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深衣制에 대한 변론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深衣는 특히 朱子의 家體에 의거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역시 제설에 따라 深衣의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본고에서는 深衣의 유형을 깃의 형태에 따라 直領深衣과 方領深衣로 분류하고자 한다.

깃에 대하여 「禮記·深衣」에는 ‘曲衿’이라하여 “曲衿은 矩와 같아서 方에 응한다” 하였는데 이 曲衿에 대한 해설로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衿은 術(矩)字의 뜻으로 曲衿은 두겹으로 깃에 선두르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는 衿은 曲領이라는 설이며, 세째는 衿은 두깃이 교차하여(交) 합한다(合)는 뜻으로 交領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다.¹²⁾ 그런데 이 ‘曲衿’을 朱子는 ‘方領’이라 하여 세번째 설을 따라 “두웃깃(襟)이 서로 덮으면 … 두깃(領)이 만나 저절로 方을 이룬다”¹³⁾ 하였는데 이처럼 두웃깃을 여몄을때 꼭 네모난 모양의 깃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나, 제가들의 해석이 대개 여기에 따라 이와같은 깃을 方領

이라 불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만들어진 것을 그모양에 따라 直領이라 칭하며, 이같은 것의 深衣를 直領深衣라 한다. 또한 깃을 襫服의 潛中制度¹⁴⁾와 같이 네모나게 만든 것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方領이라 칭하며 이같은 것의 深衣를 方領深衣라 한다.

그런데 이들 깃에도 각각 따로 布하나로 깃을 만들고 그위에 검은 緣을 두른 것과, 검은 緣만을 두른 것이 있다.

前者는 「禮記·玉藻」의 “衿二寸……緣廣寸半”을 衿2寸을 불인후 다시 그위에 1寸半의 緣을 두른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後者は 衿2寸을 깃의 緣2寸으로 해석하여 緣만 두른 것이다. 이와같이 검은 緣만 두른것은 또한 검약을 승상하는 의미로 여겨졌으며¹⁵⁾ 실제 조선시대에 深衣를 착용한 사대부들의 초상화중에도 이 두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려말의 李齊賢像과 吉再像들 가운데에는 검은 緣위에 흰색이 마치 동정처럼 둘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조선후기의 模本으로서 모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혹 동정을 실제로 덧붙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1. 直領深衣

1) 「喪禮備要」의 深衣

「喪禮備要」¹⁶⁾(1621년)는 襲具로서의 深衣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그 내용은 「古今圖書集成」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이후에 편찬된 「四體便覽」¹⁷⁾과 「家禮增解」¹⁸⁾의 圖式도 이와 유사하다(그림 1).

「喪禮備要」의 심의제도를 부위별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喪禮備要」의 深衣圖

· 衣身…衣身(길)의 폭은 좌우 각 2尺 2寸의 布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길이 역시 2尺 2寸으로 늑골부위를 지나기에 이른다.

· 裳…布6폭을 써서 12폭으로 자르는데 廣頭(치마 한쪽의 아래부분)은 1尺 2寸, 狹頭(치마 한쪽의 위부분)은 6寸이며 좌우 각 시첩은 1寸씩이다. 衣1폭에 매3폭을 이어 붙이며, 허리둘레는 7尺 2寸이고 아래단 둘레는 1丈 4尺 4寸이 된다.

치마의 12폭은 「禮記·深衣」에 “12폭을 만들어 12개월에 응한다”고 한데 근거한 것으로, 이 12폭에 대하여도 치마 12폭이라는 설과 衣6폭 치마6폭(12조각)으로 합하여 12폭이라는 두가지 설이 있다. 치마 12폭설에도 마르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 하나는 치마의 가운데 4폭을 대칭으로 똑바로 잘라 8폭을 만들고 양가의 2폭은 비스듬히 잘라 4폭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매폭을 모두 비스듬히 잘라 한쪽머리는 넓고 한쪽머리는 좁게하여 12폭으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 深衣는 후자를 대개 따르고 있으며, 「五洲衍文章箋散稿」¹⁹⁾에는 전자의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衣와 치마가 합하여 12폭이라는 설로는 「四體便覽」²⁰⁾에서 衣身 布2폭, 소매 2폭, 깃 1폭, 셔 1폭, 치마 6폭이라고 한것과 「龜峯先生文集」²¹⁾에서 衣 전후 4폭, 소매 2폭, 치마 6폭이라 한것이 있다.

또한 이 深衣圖중에는 치마가의 왼쪽에 繢衽鉤邊이 있고 오른쪽에 繢衽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제설에도 오른쪽에 鉤邊이 있다. 繢衽鉤邊은 「禮記·深衣」에 기록된 구절로서 그 해설에 따라 다양한 深衣형태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논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繢衽鉤邊에 대한 제설들을 정리하면,

① 치마가의 전후폭을 잇는 것이 繢衽이며 다시 덮어봉하는 것이 鉤邊이다. (楊氏復설)

② 치마 양옆에 삼각형의 布를 만들어 이어 엮어매는 것이다. (鄭玄설)

③ 鉤鉤는 衣의 셔이며 邊은 치마 좌우의 단으로 鉤鉤가 단에 연결된다. (黃宗義설)

④ 옷깃(襟)을 마주대어 연속시키는것이 繢衽이며, 좌우를 서로 매듭으로 갈고리게 하는 것이 鉤邊이다. (韓百謙설)

⑤ 鉤邊은 矩모양의 것을 말하며, 옷섶(衽)을 矩邊에 연속시키는 것이 繢衽이다. (許傳설)

등이 있으며 「裳禮備要」에서는 ①과 같다.

· 소매…布 2폭을 쓰며 衣의 길이와 같고, 부리에 이르기까지 등글게 깎아 1尺 2寸이 되게 한다. 그러나 「禮記·深衣」에는 “格²²⁾之高可以運肘 袖之長短反詛之及肘”라 하여 사람의 몸으로서 척도를 삼고 있을 따름이다.

· 깃…양웃깃(襟)이 서로 덮어 양깃(領)이 만나 저절로 네모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이 형성된 것은 네모형이 아니며 여민깃의 형태로 본고에서 이른바 直領에 속한다. 이 領의 補註에는 따로 布하나를 써서 두르는 裕 2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흑연…깃은 2寸, 소매부리와 치마단은 1寸半의 緣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같이 하면 깃은 裕 2寸위에 다시 緣 2寸을 덧붙인 것이 된다. 그러나 「四禮便覽」과 「家禮增解」에는 깃의 緣이 1寸半으로서 裕 2寸에 緣 1寸半이 붙여지지만 각 深衣圖에는 緣만이 보인다.

또한 深衣가 없을때에는 直領衣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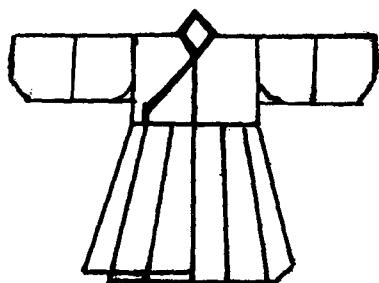


그림 2. 「家禮附贊」의 深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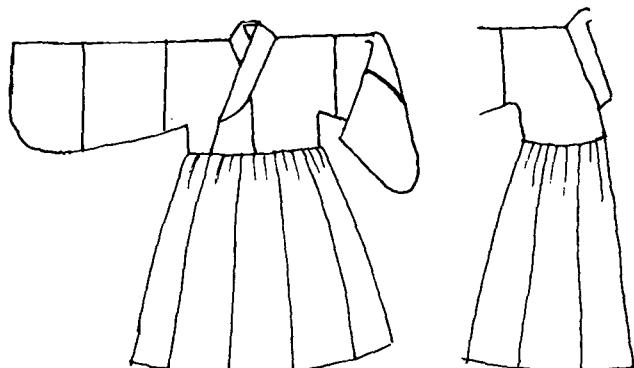


그림 3. 金緯의 天翼(韓國傳統服飾史研究, p. 291)

2) 「家禮附贊」의 深衣

「家禮附贊²³⁾」(1628년)의 襫服 深衣圖는 그 제도가 다른 것들과 차이가 많다. 즉 치마폭의 앞 왼쪽이 4폭 반이며 오른쪽이 2폭반이고, 衣에는 왼쪽길에만 셈이 있고 2폭의 소매로 이루어진다(그림 2). 그런데 이 深衣는 비슷한 시기에 金緯(1558~1618)의 무덤에서 출토된 天翼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며(그림 3), 다만 깃의 형태가 다르고 天翼의 치마에는 주름이 잡혀져 있는것이 다르다. 이것은 李裕元의 「林下筆記」 및 李肯翊의 「然黎空記述」에 “우리나라의 貼裏制度는 深衣와 가장 비슷하다²⁴⁾”는 기록과 부합되며 이같이 深衣와 天翼의 유사성을 통하여 深衣가 복식에 미친 다양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3) 「星湖僊說」의 深衣

「星湖僊說」은 실학파인 李翼(1724~1776)이 저술한 것으로 그중에 深衣制度에 대하여 “深衣의 너비는 7尺 2寸인데 세겹으로 옷을 만들어 한겹에 해당되는 2尺 4寸이 없어진다. 이렇게되면 둘레가 4尺 8寸에 불과하지만, 3尺 5寸이라는 몸둘레에 비교하면 1尺 4寸이 더한 셈이니 몸집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고 기록하였다.

이 深衣論에 따르면 衣身의 치수가 국내의 포백(당시 1尺4~5寸)에 맞게 폭이 줄어들어 있으며, 또 셈이 좌우에 덧붙여지고 앞길의 좌우와 뒷길이 세겹으로 완전히 포개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 衣에 붙은 셈은 ‘續衽鉤邊’의 程을 깃아래의 셈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같이 衣에 셈이 붙은 深衣는 일찌기 고려 말의 吉再(1353~1419)로 부터, 韓元震(1682~1751), 許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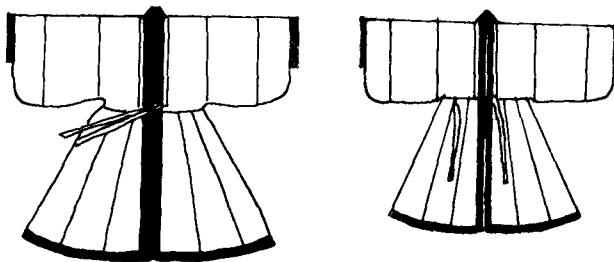


그림 4-1. 深衣 유물(1700년대초) 그림 4-2. 深衣 유물(1800년대말)

(1797~1886), 黃玹(1855~1910)의 초상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4) 深衣유물

현재 조선시대의 直領深衣로는 2점의 유물이 있다. 그중 하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진종(1647~1702)의 유의이며(그림4-1) 다른 하나는 尹泰希氏²⁶⁾ 소장의 1800년대말 유물로 명주로 만든 深衣이다(그림 4-2). 이둘은 약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가 유사하며 前代의 것이 길이나 폭이 각각 20 cm정도씩 더 크다. 그 형태는 衣 2폭에 소매는 1폭반 치마는 12조각이며, 소매부리와 옷의 가장자리에 검은색 緣이 둘려져 있고 깃에는 補과 緣이 있다. 또 허리부근에는 큰이 붙어있어 여밈을 단단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그후 조선후기의 許傳, 崔翼鉉, 黃玹의 초상화에 보이는 큰 고름으로 발전된 것 같다. 소매가 1폭반으로된 이유는 「禮記·玉藻」의 '長中繼揜尺'의 해석에 의한 것인데 대개 長衣·中衣는 소매에 1尺을 이어 손을 덦는다는 뜻이다.

尹泰希氏는 이 深衣를 '直領深衣'라 불렀으며, 깃자체가 네모난 深衣를 '方領深衣'라고 불렀다.

5) 「四禮輯要」의 深衣

「四禮輯要」²⁷⁾(1906년)에는 深衣의 옛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가 소개되고 있다. 옛제도는 直領 2寸에 緣 1寸半이며, 소매는 「士儀」를 본떴다하여 破腋(소매의 진동이 허리선에 붙지 않고 진동나비가 좁으며, 도포의 진동부위와 유사하다)되고, 소매폭이 1尺 덧붙여져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는 그림5와 같이 衣·裳이 한폭으로 이어져 있으며 길이가 복승뼈에까지 이르고, 6개의 祈(2개의 셀과 4개의 무)이 비스듬히 잘려져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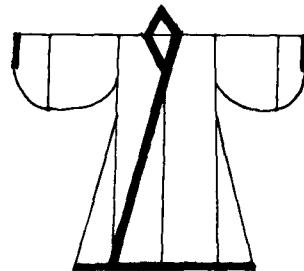


그림 5. 「四禮輯要」의 새로운 深衣圖

리에서 봉합되었다. 깃의 緣은 2寸 너비에 앞길이가 1尺 2寸이며, 깃아래에서 단 및 소매부리에는 너비 1寸半의 緣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緣을 떼버리면 큰 소매가 달린 두루마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곧 行衣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六禮修略」에 行衣는 소매달린 두루마기로서 深衣를 계승한 것이라 하였으며,²⁸⁾ 따라서 이 새로운 深衣는 深衣 대용물이 되는 行衣와 구성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2. 方領深衣

1) 「久菴遺稿」의 深衣

조선시대에 方領의 深衣制度는 최초로 韓百謙(1552~1613)에 의해 제작되었다.²⁹⁾ 그는 深衣制度에 대한 註疏의 잘못을 지적하고 朱子의 견해에까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니, 그의 이같은 비판적 학문태도와 실증적 학문방법은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원본의 뜻을 탐구하여 새로운 深衣制度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 제도는 그다지 설득력은 없으나 당시의 학자들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즉 鄭述가 金長生에게 보낸 答書의 別紙³⁰⁾에 韓百謙과 深衣에 대해 서신을 왕래하면서 토론하였는데, 그가 죽는 바람에 결론을 못 내렸음을 토로하고 있다. 金長生도 「疑禮問解」³¹⁾에서, 徐有集도 「林園十六志」³²⁾에서 이 深衣制度에 대해 韩百謙이 함부로 일설을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남인 중심으로 창도된 실학자들은 그의 설을 지지하여 柳馨遠은 「磻溪隨錄」³³⁾에서 韩百謙의 深衣說全文을 담고 있으며; 「禮記臆」³⁴⁾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의 옷이 되니 염연히 입을만 하다고 하였다.

그후 남인 중심의 성리학인 영남학파 許傳은 「士儀」³⁵⁾에 형태가 약간 다른 方領深衣를 제기하였으니, 韩百謙의 方領深衣는 그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몇세기동안 잠재해 있었던것 같다. 이 深衣의 형태는 潛中 제도처럼 네모난 것에 옷깃(襟)이 서로 마주하여 내려오는 對襟의 형태로 앞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를 매듭으로 걸며, 소매는 2폭을 이었고 치마는 12조각이다(그림 6).

그의 深衣說중 새로운 해설을 제기한 繢衽鉤邊과 曲衿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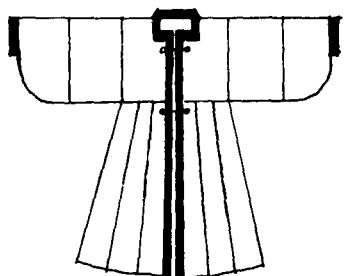


그림 6. 「久庵遺稿」의 深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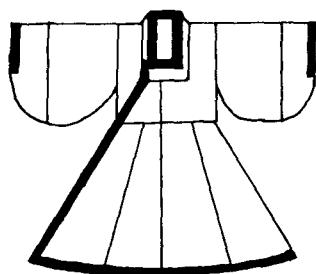


그림 7. 「士儀」의 深衣圖

· 繢衽鉤邊…“續과 屬은 옛날에 통용한 글자이다. 衮은 옷의 양옷깃(襟)이다. …다만 양편 옷깃(襟)아래를 마주대어 겨우 서로 연속시키기 때문에 繢衽이라는 것이다…좌우가 서로 같고리지게 되어야 열리는 격정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鉤邊이라 한다.”³⁶⁾하여 對襟의 제도를 만들고 매듭으로 좌우를 결었다.

· 曲衿…“衿은 깃의 緣이다. 옷깃 양편 가의 턱이 닿는 것을 재단하여 모나게 하니 지금의 被服앞의 潛中제도와 같아서 목을 편하게 하고 2寸의 겸은 견으로 그 가를 선을 두르기 때문에 曲衿이라고 한다.”³⁷⁾하여 선두로는 것을 曲衿이라 하였다. 이때 曲衿은 2尺 4寸으로 소매부리와 더불어 「禮記·深衣」의 이른바 3法(아귀)를 이룬다.

2) 「士儀」의 深衣

許傳(1797~1866)이 그의 저서 「士儀」³⁸⁾와 「士儀節要」³⁹⁾에서 제시한 深衣圖는 경남 산청군의 麗澤堂에 게 안되어 있는 초상화와 형태가 일치한다. 이 深衣는 그림 7과 같으며 각부 형태는 다음과 같다.

· 衣身…길이 2尺 2寸, 너비 1尺 2寸으로 폭이 줄었다.

· 潛中…潛中の 너비는 8寸으로 被服과 같으나 길이는 1尺 2寸으로 더 길다. 직선의 선으로 두른데 비해 여기서는 따로 네모난 모양의 것을 만들어 붙이고 이것을 鉤邊이라 하였는데, 그의 설에 의하면 鉤와 矩는 옛날에 서로 통하는 것으로 鉤邊은 곧 曲衿이라 하였다.

· 衮…衿은 깃아래의 衮, 衣아래의 衮, 치마가의 衮 3종류가 있는데,⁴⁰⁾ 여기서는 「說文」의 깃아래의 衮 즉 穗으로 보았으며 결설 안설이 같고 이 衮을 曲衿에 연결시켜 繢衽이라 하였다.

· 소매…소매폭과 길이는 「禮記·玉藻」의 長中繼捺尺에 대한 鄭玄의 설에 따라 반폭인 1尺을 더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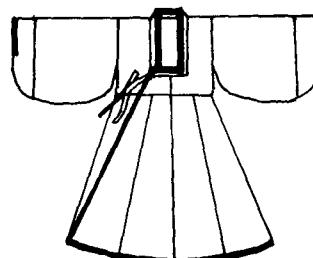


그림 8. 深衣 유물 (1900년대)

· 치마…마름질은 다른 深衣制와 같으나 衣에 연결할 때는 앞 좌우에 4폭씩 그리고 뒤에 4폭이 되게 하였다.

· 縫…깃, 소매부리, 옷 가장자리에 안박이 각 1寸半 씩 縫이 있으며, 소매부리에는 縫이 소매쪽으로 들어와 있다.

· 고름…深衣圖에는 없지만 초상화에는 고름으로 여민 모습이 보인다.

3) 深衣유물

이 유물은 조선말기 지방 사대부가 착용한 麻로 만들 어진 深衣로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형태는 「土儀」의 深衣 制度를 따랐다(그림 8).

IV. 결 론

이상의 조선시대 深衣유형에 대한 고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深衣의 우리나라 전래시기는 고려시대라는 것이 통설이나, 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深衣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성이 짙다.

둘째, 조선시대 深衣의 유형은 깃의 형태에 따라 直領 深衣와 方領深衣 두 가지로 대별하여 분류된다.

① 直領深衣는 제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받아 들여진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朱子家禮를 따라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의 구성법은 두웃깃(襟)을 서로 덮어 두깃(領)이 만나게 하는 데 이때 형성되는 깃모양이 「禮記」의 이른바 矩와 꼭 비슷하지는 않고 오히려 直領이 된다.

② 조선시대의 方領深衣는 韓百謙(1552-1613)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으며, 깃모양이 襪服의 濶中제도와 같아 네모나고 그 가를 검은견으로 선을 두르고, 웃깃(襟)이 서로 마주하여 내려오는 對襟의 형태이다. 그런데 이 深衣제도는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하다.

그후 許傳(1797-1886)에 의해 제작된 方領深衣는 네모난 모양의 깃을 開中에 붙이고, 衣에 穗이 있고 소매가 1폭반이며, 치마의 앞좌·우와 뒤가 각각 4폭으로 된 것으로, 근래에까지 直領深衣와 더불어 두개의 큰 맥을 이루며 널리 사용되었다.

이같은 方領深衣는 「禮記」의 繢衽鉤邊과 曲袷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생겨난 것이며, 矩형상인 方을 그대로 깃에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세째, 「家禮附贊」의 直領深衣는 깃과 치마주름의 유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형태가 비슷한 시기에 출토된 天翼과 유사하여, 天翼에 미친 深衣의 영향을 알 수 있다.

네째, 「四禮輯要」에 보이는 옛제도를 본 뜻 새로운 深衣는 衣·裳이 한폭으로 연결되어 있고 6개의 絆(2개의 穗과 4개의 무)이 있다. 이제도에서 緣을 떼어내면 큰 소매의 두루마기 즉 行衣가 되어, 行衣가 深衣 대용물로 사용된 사실과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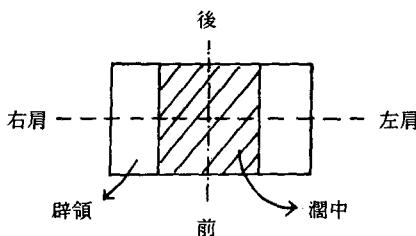
다섯째, 본 연구의 자료조사에서 深衣의 대용물로는 直領衣(喪禮備要), 直領·禧祫(四禮便覽), 團領·禧祫·直領·道袍(喪禮要解)⁴¹⁾, 道袍·行衣(六禮修憲)가 있다.

인 용 문 헌

- 1) 周易, 繫辭 下傳,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
- 2) 禮記, 王制, 「有虞氏皇而祭 深衣而養老……殷人冔而祭 緣衣而養老」
- 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5, (1984)
- 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叢 I 古代編, 文化出版局, 253, (1979)
- 5) 金仁淑, 深衣考,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73, (1974)
- 6) 崔致遠, 類說經學錄敍, 「古人制爲衣裳非徒以畫飾也 所以寓其德也 非徒以觀美也 所以表其義也……規矩方圓之應 亦於深衣之微而見之」
- 7) 規는 원형을 그리고 자로서 소매의 형태를 의미하여, 矩는 네모형을 그리고 자로서 깃의 형태를 의미하여, 規互는 圓과 方의 모양에 상응한다.
- 8) 高麗史, 睿宗條, 「元年正月癸丑……王服深衣助冕」
- 9)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3, (1978)
- 10) 禮記, 玉藻「朝玄端夕深衣 深衣三祛 縫齊倍要 絆當旁袂可以回肘 長中繼撩尺 補二寸 絆尺二寸 緣廣寸半」
- 11) 禮記, 深衣, 「古者深衣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 短母見膚 長母被土 繢衽鉤邊 要縫半下 絆之高下 可以運肘 袂之長短 反詘之及肘 帶下母厭髀 上母厭脅 當無骨者 制十有二幅以應十有二月 袂圓以應規 曲袷如以應方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故規者行舉手以爲容 負繩拘方者 以直其政 方其義也 故易曰 坤六二之動 直以方也 下齊如權衡者 以安志而平心也 五法已施 故聖人服之 故規矩取其無私 繩取其直 權衡取其平 故先

壬貴之 故可以爲文可以爲武 可以攘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具父母大母衣純以續 具父母衣純以青 如孤子 衣純以素 純袂綠 純邊 廣各寸半

- 12) 韓百謙, 久菴遺稿, 서울, 悅話堂, (1972)
- 13) 朱子大全, 六十八卷, 「兩襟相掩……兩領之會自方」부산대학교 도서관.
- 14) 閨中은 후 閨中이라고도 하는데, 가운 데를 뚫어서 목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中國古代喪服의 基礎的研究)

- 15) 龜峯先生文集, 卷之七「則無衿只以黑緣二寸廣衿而用之蓋儉約也」, 부산대학교 도서관
- 16) 申羲慶, 喪禮備要, 上, (1620-1621), 부산대학교 도서관
- 17) 李 緯, 四禮便覽, 卷之一, (1844), 부산대학교 도서관
- 18) 李宣祖, 家禮增解, (1792), 부산대학교 도서관
- 19) 李圭景, 五洲衍文章箋散稿, 卷之五十六, 深衣辨證說
- 20) 李 緯, op. cit.
- 21) 龜峯先生文集, 卷之七
- 22) 格은 衣와 소매가 마주대하는 거드랑이의 혼술기이다 「土儀」
- 23) 安 琢, 家禮附贊, 卷之三, (1628), 부산대학교 도서관

- 24) 李裕元, 林下筆記, 李肯翊, 燃黎室記述, 「我東帖裏之制 最近於深衣」 丸裕
- 25) 李 漢, 星湖集說, 卷之五, 萬物門, 「深衣之廣七尺二寸 而三疊爲衣 則除一疊二尺四寸 圍不過四尺八寸 比身圍三尺五寸 增一尺三寸也 亦可三容軀體裕如也」 부산대학교 도서관
- 26) 尹泰希氏(79세, 서울 중곡동)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深衣는 祖母께서 제작한 것이므로 100여년전의 것으로 여겨지며, 祖父·父親·本人이 착용했던 것이다.
- 27) 李震相, 四禮輯要, (1906), 부산대학교 도서관
- 28) 李漢驥, 六體修略, 卷之一, 경북 고양서당, (1932), 「行衣 俗制有袖周衣用以承深衣者」, 부산대학교 도서관
- 29) 韓百謙, op. cit.
- 30) 鄭 速, 寒岡先生文集, 卷之三, 金希元長生 別紙, 부산대학교 도서관
- 31) 金長生, 疑禮問解, 一冊, (1623-1649), 부산대학교 도서관
- 32) 徐有集, 林園十六志, 卷第三, 保景文化社, (1983) 矩
- 33) 柳馨遠, 磻溪隨錄, 卷之二十五, (1769)
- 34) 李德懋, 禮記臆, 「…而自爲一衣 儼然可服」
- 35) 許 傳, 士儀, 總目, (1870), 부산대학교 도서관
- 36) 韓百謙, op. cit., 「續與屬古字通用 衣前兩襟也…只兩襟對下纔相連續故云續衽……左右交鉤然後可無分開之患故又云鉤邊」
- 37) Ibid., 「衿領然也 衣領兩邊當頤領處裁割取方如今喪服 前闊中之制以安·項而以二寸皂絹純其邊故云曲衿」
- 38) Ibid.
- 39) 許 傳, 士儀節要, (1874), 부산대학교 도서관
- 40) 谷田孝之, 中國古代喪服の基礎的研究, 東京, 風間書房, 288, (1970)
- 41) 喪禮要解, 乾, 부산대학교 도서관